



요즘 예능 닦아도 너무 닦았어~

‘하룻밤만 재워줘’·‘용띠클럽’ 등 기존 인기 프로 복제 양상 ‘눈살’
공영방송 파업 장기화도 영향 ... ‘예능 베끼기’ 지속될까 우려

아무리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지만 토씨 하나만 바꿔놓고 새것이라 주장하니 낯뜨겁다. 최근 중국이 우리나라 예능들을 베껴 논란이다. 물론 중국은 제목부터 세트장까지 그대로 갖다 쓰니 문자 그대로 표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예능들도 ‘한끼’ 차이만 있을 뿐 연출자의 고민이 보이지 않는 기계적 모방이 난무해 중국을 욕하기가 부끄러워진다.

KBS 2TV가 지난 추석 연휴에 선보인 ‘국제적 민폐’ 논란을 부른 ‘하룻밤만 재워줘’는 JTBC의 대표 예능 ‘한끼줍쇼’를 꼭 빼놓았다. ‘한끼줍쇼’는 국내에서 밥을, ‘하룻밤만 재워줘’는 외국에서 잠자리를 해결하는 미묘한 차이만 있을 뿐이다.

KBS 2TV ‘혼자 왔어요’는 20대 남녀가 사흘간 여행에서 느끼는 감정에 집중한다. 여기서 채널A의 ‘하트시그널’과, ‘졸을 서시오’는 핫플레이스 앞에서 일반 시민과 함께 줄서서 대기한다는 점에서 JTBC ‘밤도깨비’와 흡사하다.

SBS TV ‘박스라이프’도 위 사례보다는 덜하지만

자사 모바일 브랜드인 모비딕의 인기 프로그램 ‘99초 리뷰’를 확장한 느낌이다. 추석 후에도 복제 프로그램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연예계 1976년생 모임을 내세운 KBS 2TV ‘용띠클럽’은 tvN 대표 예능들을 뒤쫓는 느낌이다. 40대 또래 뮤지션들의 여흥기를 담았던 ‘꽃보다 청춘’ 페루 편, 그리고 여행과 쿡방(요리하는 방송)을 결합한 ‘윤식당’이 모방 대상이다. 출연진은 방송에서 시도하고 싶은 포맷을 이야기하면서 ‘윤식당’, ‘삼시세끼’, ‘한끼줍쇼’ 등 타 프로그램을 아예 대놓고 언급하기도 했다.

SBS TV가 오는 28일 첫선을 보이는 ‘살짝 미쳐도 좋아’는 아직 베일에 싸여있지만, 연예인들의 사적인 취미 생활을 엿보는 형식은 이미 MBC TV ‘나 혼자 산다’ 등에서 익숙하게 봐온 것들이다.

물론 예능의 자기복제 현상은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음악·오디션 예능부터 연예인 가족 관찰 예능까지 ‘베끼기’가 트렌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음악 예능의 경우 KBS 2TV ‘복면가왕’과 tvN ‘수상한 가수’, 엠넷 ‘프로듀스101’과 KBS 2TV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더 유닛’ 등이 닦은꼴이다. 연예인 부부가 나오는 SBS TV ‘삼글 와이프’와 ‘동상이몽 2’, E채널 ‘별거가 별거나’도 포장된 구호는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다.

방송가에서는 이러한 ‘서로서로 베끼기’가 한동안 지속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한 예능 홍보 담당자는 15일 “케이블과 종합편성 채널이 활성화하면서 제작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관찰형 예능을 많이 내놨는데 기대 이상의 인기와 이익을 얻게 되자 시장과 같은 시장에 뛰어들어 형국이 됐다”고 분석했다. 여행 포맷의 예능 등도 과거처럼 인력과 비용을 크게 투자하지 않고도 재밌게 뽑아내는 요령을 찾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방송가 관계자는 “최근 공영방송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정상적인 방송보다 임시방편 격의 프로그램이 늘어난 것도 ‘자기복제 활성화’에 조금은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건전지처럼 오래가는 그룹 될 것”

비투비, 2년 만에 새 앨범 발매

“저희가 파격적인 걸 추구하는 팀은 아니에요. 고의로 이슈를 만든 적도 없고요. 좀 더 다양한 연령층과 사람들에게 이용되는 H&M이나 유니클로 같은 팀이 되겠습니다.”(정일훈)

7인조 보이그룹 비투비(BTOB)(샤진)가 16일 2년 만의 정규 앨범인 ‘브라더 액트’(Brother Act.)를 내놨다.

비투비는 이날 서울 강남구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데뷔 6년 차를 맞은 소회를 이렇게 말했다.

13곡이 담긴 ‘브라더 액트.’는 한 편의 음악영화처럼 구성됐다. 비투비의 평소 유행하던 모습은 잠시 내려놓고 성숙한 이미지를 부각했다. 타이틀곡 ‘그리워하다’는 멤버 임현식(25)이 작곡한 곡으로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잔잔하게 풀어냈다.

치열한 가을 컴백 대전, 세계적인 아이돌이 된 방탄소년단과 ‘괴물 신인’ 워너원 등과의 경쟁이 부담스럽지는 않았을까.

이민혁(27)은 “워너원이나 방탄소년단처럼 매년 세상을 놀라게 하는 친구들을 보며 저희도 놀란다”며 “저희도 예전에 보여드리지 못한 모습을 새롭게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까지 큐브엔터테인먼트에서 한솔밥을 먹었던 그룹 하이라이트와 같은 날 컴백하는 것에 대해 “연습생 때부터 존경하던 선배들이어서 영광이다. 다양한 가수들이 다양한 음악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건 즐거운 일”이라고 보답하게 말했다.

완전체 활동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

다. 이들의 7인조 컴백은 7개월 만이다. 지난 3월 10번째 미니앨범 ‘필름’(Feel ‘eM)의 타이틀곡 ‘무비’(MOVIE)로 활동한 이들은 4월 이창섭을 시작으로 9월 서은광까지 멤버별 솔로곡을 발표하는 싱글 프로젝트 ‘피스 오브 비투비’(Piece of BTOB)를 진행했다.

정일훈(23)은 “개인 활동도 흥미롭지만 7명이 함께할 때 에너지를 얻는다”고 강조했다. 이창섭(26)은 “멤버들이 정말 노력해서 만든 앨범이니 기대하셔도 좋다”고 덧붙였다.

이번 앨범의 성적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이민혁은 “4년간 무명 생활을 한 만큼 솔직히 순위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저희 음악을 보여드릴 기회를 부여받은 것 자체에 감사하는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육성재 역시 “기자간담회를 할 때마다 매니저 형들에게 ‘기자분들 몇 분이 오셨어요?’라고 걱정하며 물어본 게 잊지 않게 같다”며 “앞으로도 바르고 오래가는 건전지 같은 비투비가 될 것”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멤버들은 갖 데뷔한 아이돌 그룹처럼 거침없이 ‘1위가 목표’라고 외치진 않았지만, 팀 자체에 대한 애정은 누구보다 컸다.

리더 서은광(27)은 “비투비는 오래오래 다 같이 음악을 할 것”이라고 말했고, 육성재도 “저희는 끝을 상상하지 않고 있다. 은광이 형의 건강이 닿는 데까지 계속 노래할 것”이라고 거듭했다.

비투비의 정규 2집은 이날 오후 6시 음원 사이트에 공개된다. /연합뉴스

차승원, tvN ‘화유기’ 출연 요괴 ‘우마왕’으로 변신

배우 차승원(47·사진)이 tvN 새 주말극 ‘화유기’에서 요괴 연기에 도전한다. 드라마 출연은 2015년 ‘화정’ 이후 2년 만이다.

tvN은 “차승원이 오는 12월 첫 방송할 ‘화유기’에 주인공으로 출연한다”며 “이 드라마는 고대소설 ‘서유기’를 현대적으로 재창조한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큰 줄거리는 악동 요괴인 손오공과 흰 소 요괴 우마왕이 대립하며 2017년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작품이다. 차승원은 우마왕 역이다.

우마왕은 젠틀한 매력에 지닌 흰 소 요괴이자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사 회장이다. 현재 삶에 만족하며 살고 있지만 과거부터 악연이 있는 손오공과 삼장법사인 진선미와 재회하면서 기묘한 삼각관계에 휘말리게 된다.

이번 작품은 대본 집필과 연출을 각각 홍자매 작가와 박홍근 PD가 맡았다. 차승원은 과거 독자인 캐릭터로 큰 사랑을 받은 ‘최고의 사랑’에 이어서 한 번 이들과 힘을 맞추게 됐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00 KBS 뉴스광장	15 걸어서 세계 속으로 (재)	00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00 모닝와이드 1~2부
50 인간극장	05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20 아시아의 전통시장 50 훈장 오순남	30 KBC 모닝 730
25 아침마당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달콤한 원수
30 KBS 뉴스	00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 만만	30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1대 100 (재)	50 20세기 소년소녀 (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00 UHD 명품역사관 장영실 (재) 50 UHD 한식 (재)	50 마녀의 법정 (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총조립 55 특독 보원설계 (재)
00 KBS 뉴스 12 30 영상앨범 산 (재)	00 특선다큐 로마의 지하세계	00 헬로키키 동물교실 55 수빈스토리 2	55 닥터 365
00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50 한국인의 밤상 (재)	00 생활의 발견 (재) 50 자동차부착상 위키 2	25 텔레몬스터 (재) 40 별별머드(재)	00 뉴스브리핑
40 월요기획(재)	20 TV 유치원 50 여유만만 (재)	50 하하랜드 스페셜	00 2017 중등 S-클래스 고교동문 골프대회
30 행복만 지도 (재)	00 KBS 뉴스 5 10 공감다큐, 사람 30 팔도발상 스페셜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MBC 이브닝뉴스 40 20세기 소년소녀(재)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00 4시 뉴스집중	30 2TV 생생정보	10 살맛나는 세상	00 맨 인 블랙스 20 2017 KBO리그 플레이오프 1차전
00 KBS 뉴스 7 35 새만금 표류기	50 내 남자의 비밀	15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0 글로벌24 55 1대 100	35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55 별별머드	50 SBS 8 뉴스
00 KBS 뉴스 9 40 KBS 글로벌 다큐멘터리 -살아있는 지구2	00 마녀의 법정	00 20세기 소년소녀	10 KBC 8 뉴스 20 사랑의 온도
30 KBS 뉴스라인	10 철부지 브로망스-용띠클럽	10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30 불타는 청춘1~2부
00 UHD 특집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55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40 허끝으로 만나는 중국 스페셜	50 나이트라인	

EBS 1			
05:00 왕초보 영어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5:15 꼬마기사 마이크	19:30 EBS뉴스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09:40 정수의 비밀(재)	15:30 오도트, 이상한 아이들	19:55 극한직업
(미국 자동차 횡단 7500km 두 가우보이, 남부에 빠졌다)	10:30 한국기행(재)	15:45 부릉부릉! 브루미즈	(가을, 만선 - 갈치와 아귀잡이)
06:0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정국장 김치찌개와 연어구이)	16:00 엄마 까투리	20:40 다큐오늘
06:20 세계대마기행(재)	11:20 세계대마기행(재)	16:15 투다다쿵	(무화과 나무의 무모한 도전)
07:00 강철소년대 파이아로보	12:00 EBS 정오 뉴스	16:30 방귀대장 뽕뽕(재)	20:50 세계대마기행 (아시아 최후의 정글 2부 밀림의 전사들)
07:30 로이와 함께 하는 소방안전 이야기	12:10 미스터리 휴먼 다큐	16:45 당동영 유치원1~2(재)	(아시아 최후의 정글 2부 밀림의 전사들)
07:45 출동! 슈퍼원스	12:40 세상의 모든 법칙(재)	17:15 로이와 함께 하는 소방안전 이야기	21:30 한국기행 (인생 이빨관, 머리 하슬래요?)
08:00 당동영 유치원1~2	12:45 메디컬 다큐-7요일(재)	17:30 강철소년대 파이아로보	22:45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08:30 플라워링 하트	13:40 성년 홀고기(재)	17:45 호기심 소녀 도트	23:35 메디컬 다큐-7요일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4:30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종합)	18:00 생방송 특집! 보너스나니~4	24:25 세상의 모든 법칙
09:00 몬카트	15:00 우주탐방기 잭	19:00 몬카트	
09:15 소피 루비		1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10월 17일 (음 8월 23일 丁丑)

子	48년생 기우뚱거리다가 바로 서는 위상이라 할 것이다. 60년생 살행하기 전에 세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72년생 생산적인 국면으로 접어들다. 84년생 우연히 같이 있다가 영결에 억울한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날이다. 행운의 숫자 : 54, 23	午	42년생 무의미한 판국이다. 54년생 확실하 이득이 될 만 하느니라. 66년생 양자 사이를 조율할 필요가 있느니라. 78년생 너무 거친 상태이니 세밀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90년생 순리대로 풀어나간다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한다. 행운의 숫자 : 15, 99
丑	49년생 유지하는 것이 전부 아니고 진보해야 한다. 61년생 좀 더 나은 조건으로 변경될 것이다. 73년생 끝없이 빠져들 수 있으니 분명한 한계를 두자. 85년생 사세를 진작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을 만한 교두보가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38, 17	未	43년생 디딤돌이 될 것이다. 55년생 변수와 유혹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67년생 도모하지 않는다면 침체하게 된다. 79년생 이상적인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접근하라. 91년생 강력하게 처리해야 효과 보겠다. 행운의 숫자 : 05, 20
寅	50년생 한 눈에 보아도 쉽게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 찾을 수 있다. 62년생 외관에 치중하다보면 내실이 취약해진다. 74년생 실수로 인한 누락이나 피해가 클 수 있는 날이로다. 86년생 달리는 말에 재적을 기해야 할 때가 되었다. 행운의 숫자 : 04, 62	申	44년생 본능적인 의욕을 냉철한 이성으로 완전히 절제하라. 56년생 잠정적인 발전 속에 일시적인 정체도 보인다. 68년생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기로에 서게 되리라. 80년생 기존의 것에 신선한 요소가 가미되는 대국이다. 행운의 숫자 : 07, 01
卯	51년생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행동하는 이가 있다. 63년생 강력한 유혹의 손길이 뻗지리라. 75년생 먼저 다가선다면 충분히 개신될 수 있는 관계이다. 87년생 걸은 매끄럽지만 내부에는 문제의 씨앗이 숨고 있다. 행운의 숫자 : 82, 80	酉	45년생 잠깐의 요동이 있을 수나 곧 안정될 것이니 염려 마라. 57년생 이론과 실제 현상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자. 69년생 지나친 기교가 오히려 불편함을 야기할 수도 있으니 실질 위주로 임하라. 81년생 동참하는 것이 이롭다. 행운의 숫자 : 81, 25
辰	52년생 그 자체만으로도 효과가 있다. 64년생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때라고 본다. 76년생 파격적인 조건이 주어질 것이니 잘 활용하도록 하자. 88년생 그동안 품어왔던 뜻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행운의 숫자 : 71, 16	戌	46년생 모서러 눈치 봐야만 결론에 이를 것이다. 58년생 결과물의 수량이 늘어나는 풍요로움이 보인다. 70년생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2년생 확고한 뜻을 갖고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용의 도를 지키자. 행운의 숫자 : 50, 14
巳	53년생 남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될지도 모른다. 65년생 알면서도 빠져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자. 77년생 만 가지 일이 뜻과 같이 되는 순조로움이 보인다. 89년생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것이니 어욕적으로 임해두지 마라. 행운의 숫자 : 95, 58	亥	47년생 충분한 설명을 듣지 않다면 비틀거릴 것이다. 59년생 부담스럽더라도 조건 없이 수용하는 것이 무방하다. 71년생 앞뒤를 잘 가리어서 뛰어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83년생 한 가지 생각에 몰두하다가 다른 것을 놓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1, 34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